



원로와의 대담

齒醫學역사의 산증인 李 春 根 박사

대담 / 李 光 榮
〈한국일보 부국장 / 과학평론가〉

우리나라 치의학(齒醫學) 역사의 산증인이며 구강외과학의 개척자인 이춘근(李春根)박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집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5시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하루의 일과를 연다. 올해 희수(喜壽)를 맞은 이박사는 1918년 평북 구성(龜城)군 방현(方峴)면 남시에서 태어났다. 이박사는 1983년 2월 말 정년퇴직후 한남동에 치과의원을 개원, 아침 10시부터 환자를 돌보고 있다. 서울대 명예교수로 요즘도 매 금요일 서울대 치대에 나가 대학원 학생들의 세미나를 주재한다.

■ 박사님께서 태어나 자라던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가정,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셨는지요.

평북 태생 ... 송도고보 진학

아버지 이정성(李貞成)씨와 어머니 이복성(李福成)씨의 5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선친은 6형제중 셋째 이셨는데 장손인 큰아버지(李元成)가 아들이 없어 나를 양자로 보냈습니다. 우리 집안은 모두 농사를 지었지만 먹고 살기엔 지장이 없었어요.

고향인 방현에서 소학교를 나온 후 열다섯살 되던 해 개성의 송도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개성으로 가게 된 것은 작은 아버지의 권유에서였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송도고보에 가야

민족혼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송도고보는 감리교재단의 학교로 윤치호(尹致昊)선생님이 설립했는데 특하면 동맹휴학을 했습니다. 2학년 때 안창호(安昌浩)선생님이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안창호선생님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독립하려면 많은 인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인격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인격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격자가 많아야 독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치과(齒科)를 전공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경성齒專 나와 모교강단에

처음은 의학을 공부하려 했지요. 그러나 색약이 문제가 되어 의학을 할

수 없었어요. 색약을 받아주면서 의학과 연관된 학문을 찾다보니 치과학을 택하게 되었어요. 당시 치의학을 가르치는 곳은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뿐이었어요. 1941년 4년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부수(副手)로 발령받아 모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조부께서 돌아가시며 꽤 많은 땅을 종손인 나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당장 벌지 않아도 먹고 살기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 당시 경성치과의학전문대학의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구강외과·보철과·보전과·교정과 등 4개 학과가 있었는데 매해 1백명씩 뽑아 전교생이 4백명 정도였어요. 교수는 25명 정도였는데 이중 한국인은

5명이었습니다. 병리의 김동순(金東淳)·보전의 선덕영(宣德英)·보철의 심태석(沈泰錫)·같은 보철의 송재형(宋在亨)씨와 그리고 구강외과에 내가 있었습니다. 일제는 2차세계대전 말기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의 학생을 50명 늘려 1백50명씩 뽑았습니다. 군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었지요. 일제는 치과 학생에 대해 졸업때까지 병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백50명 모집에 수험생이 무려 3천여명이 몰려드는 일이 있었어요.

■ 구강외과를 택한 동기와 당시 구강외과에서는 어떤 질환이 많았는지요.

처음에는 기초학문인 병리를 하려했습니다. 그러나 병리는 현미경을 많이 보아야 하는데 색약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구강외과를 택했지요.

충치가 많아 이를 뽑는 일(拔牙)을 가장 많이 했어요. 충치 다음으로 종양이 많았습니다. 골절환자는 1년에 많아야 20여명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골절환자가 많이 늘어났지요. 1942년 조수(助手)를 거쳐 광복이 되던 해 조교수가 되었습니다.

■ 광복후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부는 1946년 사립이었던 경성치과대학을 비롯해서 같은 사립인 경성약학대학과 별도의 국립인 법학대학을 국립서울대학교에 병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른바 국대안 반대운동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국대안 반대운동은 주로 좌익학생이 주동이 되었는데 6.25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지속됐어요. 그리고 경성치과대학에 남아있던 한국인 학생 40여명이 첫 서울대 치대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김주환



▲이준근박사(右)가 서울대 치대 학창시절 치대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金周煥)·안형규(安炯珪)·선우량국(宣宇良國)·차문호(車文毫)·김영해(金英海)·변종수(卞鍾秀)씨 등이 모두 1회 졸업생들이지요.

구리의 생물학적 영향 연구

국대안 반대가 심할때 주동학생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란기에 할 일은 열심히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테마를 '구리(銅)의 생물학적 영향'과 '턱뼈(顎骨)이식'에 관한 것으로 정했지요. 막상 연구를 하려하니 연구비는 물론 사람과 시설이 없었어요.

북한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왕래가 끊겨 아무런 도움이 안됐어요. 1949년 7월 중매로 지금의 아내(白英淑)와 결혼했는데 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봉급이 보잘 것 없어 짐장만할 돈은 물론 옷도 새 것을 사입기 어려웠지요. 평소에 입던 광복외이셔츠에 꿰맨 양말을 신고 결혼식을 올렸지요.

이런 형편에서 봉급의 일부를 쪼개 연구를 하려하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리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기그릇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착안한 것이지

요. 그리고 턱뼈이식은 요즘 보편화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새로운 도전이었지요. 구리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연구로 구리가 조혈(造血)과 지혈(止血)작용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옛부터 구리가 힘을 쓰는데 도움을 준다해서 가루

를 만들어 먹었는가 하면 산모에게 미역국을 줄 때 떡배기에 담아 늦쇠 손가락으로 먹게 했던 것은 오랜 경험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해서 박사논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곧 6.25가 터져 심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피난을 가야할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6월 27일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닥쳤어요. 당장 먹을 것도 없으뿐 아니라 동료의 소식도 궁금해서 학교를 나갔습니다. 혹시 배급이라도 주지 않을까 해서 나왔다는 교수들이 많았어요.

서울대서 박사학위 1호로

1.4후퇴 때는 서둘러 부산으로 갔지요. 부산에 내려가 피난학교에 나가니 박명진(朴明鎭)학장이 논문을 달라고 해요. 마침 『구리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연구』의 사본을 갖고 있어 제출했어요. 그래서 1952년 문학에 이병도(李丙燾)·김두현, 공학에 김동일(金東一)·원태상(元泰常)·전풍진(田豐鎭) 그리고 의학에 내가 서울대로부터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서울대학교 1호 박사가 되었지요.

■ 수복후 치과대학의 상황은 어떠한지요.

서울대 齒大 부속병원장 말아

수복후 1954년 부교수를 거쳐 1955년 서울대 치과대 부속병원장을 맞게 되었습니다. 치과대는 기술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데 6.25로 모든 시설이 파괴돼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교부에 현실을 호소하니 미국의 원조계획으로 일본으로부터 치과치료유니트 70여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낡고 오래돼 고장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로부터 돈을 변통해 수리를 했습니다. 70여대의 치과치료유니트가 들어오자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치주과·진단과·교정과·소아치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장 시절, 학교시설이 형편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온 터라 어떻게 해서라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 학업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69년 3월 치과대학장에 취임하면서 곧 치과대학 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치대는 1959년 소공동의 교사와 부지를 팔아 지금의 서울대학병원 울타리 안의 연건동으로 옮겨왔지만 교육시설이 정말 보잘 것 없었어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니 8억원은 가져야 했어요.

하지만 일은 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어요. 경제기획원의 김학열(金鶴烈)부총리를 비롯해서 문교부의 홍종철(洪鍾哲)장관, 금융통화위원회의 신현화(申鉉稿)씨, 정치인 윤치영(尹致暎)·김성진(金聖鎭)씨 등 많은 분들이 치과치료로 해서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찾아 다니며 “국립대학이란 곳이 시설학원만도 못하다. 이레가

지고 되겠는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대로 학교를 둘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청원도 했지요.

하루는 경제기획원 국장이라는 분이 보자고 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찾아 갔지요. 그런데 추경예산이 무엇인지나 알고 일을 벌이는가며 호통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시설은 5~10년간의 계획을 가지고 보완해 가는 것이지 추경예산에 반영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낙담을 하고 있는데 朴正熙대통령이 3억6천만원을 서울대 치대의 시설확충비로 배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잠시후 경제기획원 담당국장으로부터 불멘 소리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3억6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용내역을 작성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교수들을 비상 소집했지요. 그리고 각 과에서 필요한 모든 시설을 작성해서 비용을 적어 내라고 했어요. 교수 30여명이 머리를 짜서 안을 만들어 왔는데 모두 3억원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의 안을 토대로 밤을 새워 나머지 금액분을 보충했습니다.

같은 해 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서울대학 안에서 치과대학의 커트라인이 의과대학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40%는 의예 의대에서 떨어진 학생으로 보충됐는데 이들중 대부분이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했어요. 이로 해서 학사운영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학장 회의에서 치과대학은 2차 지망생을 안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타대학 학장들이 치과대학만은 2차 지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록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문환(崔文煥)총장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었어요. 치과대학이 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떨어지는데 이는 학교 전체로 보아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치과대학을 위해서라도 10%만 2차 지망생을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음해 치과대학의 커트라인이 공대수준으로 경총 뛰어올랐어요. 이 일이 있자 타대학에서도 2차 지망생을 안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지요.

■ 후학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장남도 치과의사로 활약

다른 분야는 몰라도 치과분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다소 인간미가 없고 도덕과 윤리면에서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는 옛날에 비해 생존경쟁이 심해진 시대적 상황이 만든 것 뿐입니다.

이춘식박사는 3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구리의 생물학적 영향·떡볶이식을 비롯해서 떡볶이질의 이식(李式)고정법·이를 쉽게 뽑는법·곤란한 발치법 등 임상면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로 해서 국민훈장 동백장(1970년)·국민훈장 모란장(1983년)을 수상했다.

30대에 덕수교회(예장·통합) 장로가 될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이춘식박사는 대한구강학회 회장(1959년), 한국기독교치과의사회장(1980년), 서울국제사이언스클럽회장(1987년)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취미는 테니스와 골프. 요즘은 주 1회 정도 골프를 즐기고 있다. 슬하에 5남매(아들 3, 딸 2)를 두고 있는데 장남이 치과의사로 있다. 17